

# ‘20경기 무승’ 광주FC, 강등 위기 현실로 다가온다



부천전서 0-0 무승부...1승 8무 13패로 승점 11에 그쳐  
공수 모두 리그 최하위...승강 PO 피하려면 반전 절실

프로축구 광주FC가 끝없는 무승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느덧 20경기째 승리가 사라지면서 시즌 초반부터 따라붙었던 ‘강등 위기’도 이제는 우려를 넘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 8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 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22라운드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최하위 탈출 발판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했던 리그 11위 부천과의 맞대결이었지만, 끝내 골망을 흔들지 못하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무승 기록은 또 한 경기 늘었다. 광주는 지난 3월 7일 인천전 이후 무려 20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시즌 성적은 1승 8무 13패 승점 11. 여전히 리그 최하위인 12위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쟁팀들과의 격차다. 광주는 K리그1에서 유일하게 승점이 10점대에 머물러 있다. 바로 위인 11위 부천과 10위 김천상무FC는 나란히 승점 24점을 기록 중이다. 두 팀과의 격차는 어느새 13점까지 벌어졌다.

정규라운드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11경기다. 이후 파이널라운드 5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아직 산술적으로 순위를 뒤집을 기회는 남아 있지만 22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만만한 격차가 아니다. 이제는 한두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승을 포함한 뚜렷한 반동이 필

요하다.

올 시즌 리그 운영 방식상 최하위에 머문다고 곧 바로 K리그2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시즌 K리그1·2 팀 수 개편과 맞물려 다이렉트 강등은 없다. 연고 협약이 종료되는 김천이 최하위로 시즌을 마치면 승강 플레이오프(PO) 자체가 열리지 않아 K리그1 강등팀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천이 아닌 팀이 최하위에 머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최하위 팀은 K리그2 3~6위가 떨어지는 플레이오프의 준우승팀과 승강 PO를 치러 생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순위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광주가 그 무대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난 2023년 K리그1 승격 이후 3년 연속 1부 무대를 지켜낸 광주가 다시 K리그2로 내려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셈이다.

반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격이다.

광주는 올 시즌 22경기에서 단 11골을 넣는 데 그쳤다. 경기당 정확히 0.5골로 리그 최저 득점이다. 슈팅도 163개로 12위, 유효슈팅 역시 52개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득점뿐 아니라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 자체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특히 승리가 절실한 경기에서도 상대 골문을 열 어줄 해결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비가 버텨내더라도 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무승부에 그치는 경기가 반복됐다. 실제 부천전에서도 무

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지만 득점에 실패하면서 승점 3을 가져오지 못했다.

수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광주는 현재까지 무려 47골을 허용했다.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실점이다. 울산(30실점)은 물론 안양과 김천(이상 28실점)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한 셈이다.

대량 실점도 반복됐다. 한 경기에서 5골을 내준 것만 4차례다. 3실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8경기에 달한다. 11득점에 그친 공격력과 47실점을 허용한 수비력으로는 승리를 쌓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올 시즌 광주가 처했던 상황을 빼놓고 성적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아무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도 승점 3을 가져오지 못하면 순위표는 달라지지 않는다. 20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이제는 ‘잘 싸웠다’는 평가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승강 PO에서도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시즌 막판까지 승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단기간에 나설 경우 선수단이 느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남은 정규리그에서 최대한 빨리 무승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다.

강등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선수단은 물론 코칭스태프와 구단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야 한다. 남은 11경기에서 위기의식을 경기력과 승리로 바꾸지 못한다면 광주의 1부 생존은 더욱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8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22라운드 경기에서 광주FC 아이데일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 광주 롤러 새 역사...김지민, 태극마크 달았다

세계스피드선수권 선발전 통과...지역 최초 주니어 대표  
전국대회 잇단 메달로 성장 입증...10월 세계무대 출격

광주체육중학교 김지민(3년)이 광주 롤러스포츠의 새 역사를 썼다. 지역 최초로 주니어 스피드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세계무대를 향한 힘찬 도전에 나선다.

김지민이 최근 충북 제천시 제천실내롤러경기장에서 열린 ‘2026 세계스피드선수권대회’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전국의 우수한 주니어 스피드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김지민은 뛰어난 스피드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발휘하며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지민의 이번 선발은 광주 롤러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주니어 스피드 국가대표를 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유망주로 꾸준히 성장해 온 김지민이 국내 무대를 넘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기회까지 잡으면서 광주 롤러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지민은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메달을 목에 걸며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6월 충남 논산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인라인스피드대회에서는 여중부 1000m 은메달과 E10000m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7월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시도대항 인라인스피드대회에서는 DTT200m 금메달을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중·장거리 종목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데 이어 단거리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종목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전국대회 경험과 경기력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이어지면서 생애 첫 태극마크까지 거머쥐었다.

이제 김지민의 시선은 세계무대로 향한다. 김지민은 오는 10월 10일부터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2026 세계스피드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



광주체육중학교 이송현 지도자, 김지민(가운데), 한준희 전무이사.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주니어 국가대표로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며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이병관 광주체육중학교장은 “김지민 학생이 보여준 성실함과 도전정신은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의 모범”이라며 “광주 최초의 주니어 스피드 국가대표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문흥중 배구부, 전국무대에서 값진 준우승

전남광주 문흥중학교 배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광주배구의 저력을 과시했다. 문흥중은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2026 IBK기업은행배 전국중고배구대회’ 남자 15세이하부에서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 결승에서 개최지 제천중과 맞붙은 문흥중은 마지막까지 선전했지만 세트스코어 0-2로 패하며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비록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전국의 강호들을 잇달아 제압하며 광주 유소년 배구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선수과 지도자들의 개인상 수상도 이어졌다. 주장 조준경(3년)이 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선진혁(3년)은 세터상을 수상했다. 최민국 코치도 선수 육성과 지도력을 인정받아 모범지도자상을 품에 안았다.

특히 이번 준우승 과정에서 장신 유망주 송태인(3년)의 성장도 눈길을 끌었다. 192cm의 뛰어난 신체조건과 운동능력을 갖춘 송태인은 광주시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2026 IBK기업은행배 전국중고배구대회’ 남자 15세이하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문흥중 배구부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육회가 일찍부터 가능성을 주목해 온 지역 배구 유망주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도 송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문흥중 진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과거 가능성을 보

IBK기업은행배 결승서 제천중에 0-2

조준경·선진혁·최민국 각각 개인상

고 발굴했던 송태인 선수가 전국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다”며 “우수한 체육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광주체육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선수 일자리 상생모델 구축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업무협약...안정적 선수 활동 지원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뒷받침할 일자리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이준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애인체육 선수 취업 지원을 비롯해 훈련시설 이용 지원, 선수 발굴 및 육성, 홍보활동 협력, 선수 현황 자료 교환(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지역과 민간이 함께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는 2016년 설립된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취업 지원 기관으로, 경기

·광주·전남·부산·제주 등 전국 9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과 장애인체육 선수를 연결해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는 42개 기업에 85명의 선수가 취업 연계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도 자체적으로 선수 취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를 통해 취업한 선수 외에도 한국전력 공사, 한전KPS,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미건설, 한국광기술원, 쌍교숯불갈비, 광주테크노파크 등 9개 기업·기관에 모두 97명의 장애인체육 선수를 취업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수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훈련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장애인 고용 참여를 확대해 선수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꿈과 노력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